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생활 적응 사례연구를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방안에 관한 연구

허명준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A Study on the Plan of Social Welfare Practice a Case Study on Adaptation of Family Life to Married Women Migrant

Myeong-Jun Heo

Seoul Christi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 간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서는 첫째, 문화 간 차이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문화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를 위해 그들의 인종, 문화, 민족, 성별, 성적 지향의 배경에 부합하는 개입양식을 사용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전문교육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 과목에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관련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가족문화의 이해라든가, 결혼이주 여성 상담이라는 항목이 결여되어 있는 등 보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생활이 자국의 생활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심과 높은 수준의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방안이 요구된다.

주제어 : 결혼여성, 이민자, 문화 간 차이, 다문화, 사회복지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social welfare practices that married women migrant can provide to them in order to relieve the stress of cultural differences and enjoy a good family life.

Results, First, action plans to overcome intercultural differences are needed. To overcome effective cross-cultural differences, interventions and goals are set for culturally diverse clients that match their racial, cultural, ethnic,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professional education personnel. In order to train professionals, cultural diversity should be addressed in existing social welfare courses. Third, the related laws need to be rearrang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continues to emerge as a need for supplementation, includ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n family culture and the lack of counseling for immigrant women. As a result, married women immigrants recognize that Korean life is different from their own in many aspects of their daily lives, so they endeavor to have a lot of patience and high level of effort in the adaptation proc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ocial welfare practice that can support this.

Key Words : married women ,immigrants, intercultural differences, multicultural, social welfare

Received 20 December 2019, Revised 03 January 2020

Accepted 15 January 2020

Corresponding Author: Myeong-Jun Heo
(Seoul Christian University)

Email: 333i@naver.com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사회는 세계화 및 경제발전에 힘입어 외국이주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준비부족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김현미, 2018: 1)[1].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이주여성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제결혼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에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그 대상국도 소수의 나라에서 현재는 여러 나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국남성과 결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으려 하고 있다. 국가 간에 다양한 이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국제결혼과 그로 인해 새로 형성된 가족들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편입되면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김현실, 2011: 188-189).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특히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은 다문화 혼인 비중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반·중 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 및 중국 한족의 결혼이주를 기점으로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여성들이 농촌총각들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주요인이며, 한국남자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매우 특수하고 다양한 위치에 놓여 있다. 결혼이주를 통해 자국의 문화로부터 격리되어 새롭게 접하는 문화권에서 영구 거주해야 하고 한국의 가부장 사회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활적응을 해 나가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과 시댁가족은 그녀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문화 간 차이에 대해서 알고도 하지 않으며, 결혼이주여성들

무시하거나 차별하면서 한국문화에 동화되어 한국 사람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결혼은 친밀한 가족관계 친밀도와 심리적 안정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적 공간이다. 특히, 결혼 안에는 부부관계, 시부모관계, 자녀관계, 건강관련, 경제 관련 등과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가정적으로 남편과 가족구성원들 즉 가족관계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와 동시에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의 적응과정에서부터 문화적 응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강유선, 2020: 16)[15].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생활에서 문화 간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적 역량증진을 위해 다문화 사회복지실천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결혼이주여성의 이해

2.1 결혼이주여성의 정의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외국인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집단은 결혼이주여성이다. ‘결혼이주(이민)자’라 함은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을 의미하며, 주로 결혼 중개를 통해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된 이주여성에 대한 호칭이다(박정하, 2015: 3)[3]. 이민자로 총칭하는 외국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별도로 분류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책은 국내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 그중에서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8년 새 정부의 행정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과로 이관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에도 나타나 있듯이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주로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의미하며, 그중에서도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에 많은 관심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원래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주민 등 한국사회에 새롭게 이주한 가족을 수용하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부르고자 사용하였으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을 주로 결혼이주(이민)자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자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거나 국적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서 한국 국적 취득이 늦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없이 이혼 등 가정 해체를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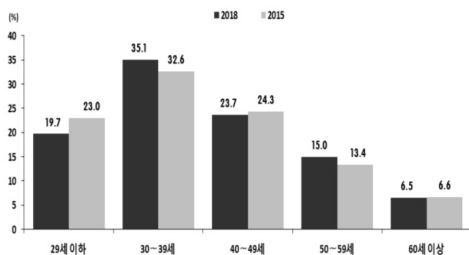
2.2 결혼이주여성의 실태분석

결혼이주자(귀화자 포함)들의 현황과 실태는 다음과 같다.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9년 5월 현재 외국인 중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인 80만 6천명으로 전체 외국인 132만 3천 명의 61.0%이고, 이중 귀화허가자는 4만 8천 명(81.8%)으로 나타났다(통계청·법무부, 2019: 1)[4]. 2018년 다문화 혼인은 23,773건으로 전년 21,917건보다 1,856건, 8.5% 증가하였다. 2018년 전체 혼인은 25만 8천 건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한 반면, 다문화 혼인은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4)[5].

결혼이주자들의 성별은 여성 82.7%, 남성 17.3%로 2015년(3년 주기 작성)보다 여성이 1.2%로 약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령대별 비율은 29세 이하 19.7%, 30대 35.1%, 40대 23.7%, 50대 15.0%, 60세 이상 6.5%로 2015년보다 29세 이하 연령층은 감소, 30대 연령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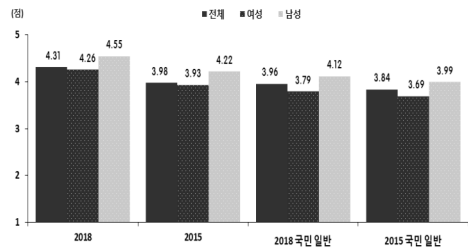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19: 3)[6].

[Fig. 1] 결혼이주자의 연령대 분포

2.2.2 가정생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4.31점(5점 만점)으로 ‘약간 만족’ 수준이며 2015년 3.98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여성가족부(2019: 5)[6].

[Fig. 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2.2.3 한국생활 어려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29.9%로 2015년보다 4.2% 증가, 외로움을 어려움으로 꼽는 비율은 24.1%로 5.6% 증가하여 사회적 관계형성 등 정서적 문제에 직면한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10)[6].

2.3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진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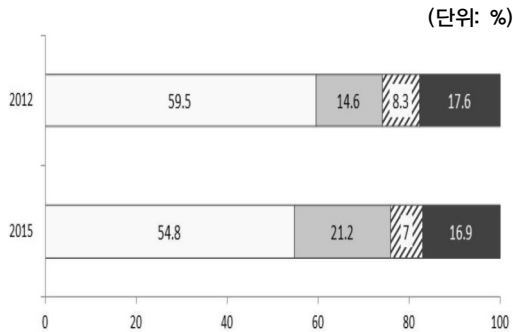
2.3.1 국적 취득 및 인권문제

국적 취득 문제는 결혼이민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최근까지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적 취득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들, 즉 남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석인선, 2020: 196)[16].

영주권 취득 결혼이민자 21,205명의 영주권 보유 기간을 살펴보면, 5-10년 미만 기간 동안 영주권을 보유한 이들이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3-5년 미만 보유자가 23.7%, 3년 미만 보유자가 27.7%이다. 평균 영주권 보유 기간은 5.4년으로, 남성 결혼이민자들(7.42년)의 영주권 보유 기간이 여성 결혼이민자(4.93년)보다 길다. 출신국 적별로는 대만·홍콩 출신이 평균 15.14년 동안 영주권을 보유해 가장 오랜 기간 영주권을 보유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 출신(7.08년)의 영주권보유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향후 국적 혹은 영주권 취득 계획을 살펴보면, 54.8%는 한국 국적 취득을 계

확하고 있으며 21.2%는 영주권만 받을 계획이라고 응답해 76.0%가 한국 국적 혹은 영주권 취득 계획을 밝혔다. 반면, 한국 국적 혹은 영주권 취득 계획이 없는 이들은 7.0%에 불과하며, 나머지 16.9%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있는 이들은 59.5%에서 54.8%로 줄어든 반면, 영주권 취득 계획이 있는 이들은 14.6%에서 21.2%로 늘어나,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국적보다는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적을 받을 것이다, 영주권만 받을 것이다, 한국 국적 혹은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없다, 모르겠다(순서대로)

자료: 여성가족부(2016: 125)[7].

[Fig. 3]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향후 한국 국적 취득 계획(2012, 2015)

최근 들어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시정되고 법적으로 향상된 조건이 부여되고 있으나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경우, 국적 취득 과정은 기본적인 인권 문제로서 정책적 배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중매, 결혼 후 가정폭력 및 학대의 문제들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데, 이는 중대한 기본적인 인권침해로 지적될 수 있다(최명민 외, 2015: 31).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가족은 1세대 인권이자 가장 보편적인 인권요소인 자유권적 침해상황도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다문화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한 그와 관련된 실천활동의 중요성도 커진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인종이나 피부색 등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소수자이며, 약자이고, 따라서 차별받기 쉽기 때문이다.

2.3.2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라 함은 주로 결혼한 이주여성이 주변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민자는 이민자의 가족 및 친척 모임부터 학부모 모임, 지역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국인과의 모임이 정보교환과 상호부조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과 한국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들이 자국인과의 관계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등의 이중적 특성이 있다(지은구 외, 2016: 317). 여가나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상대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귀화자 등이 남성보다 함께 할 상대가 없는 비율이 높다. 혼인 상태별로는 사별했거나 이혼·별거 상태에 있는 이들이 유배우자나 미혼자에 비해 여가,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상대가 없는 이들이 많아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에서도 이혼·별거, 사별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 의논, 일자리 관련 의논, 자녀 교육 관련 의논 뿐 아니라 여가·취미 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 은 한국의 가부장제적 가족중심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지연·학연·혈연 등 폐쇄적 구조의 사회 연결망 속에서 사회에 적응은 물론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문화적 갈등 혹은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억압의 문제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권위의 남편과 시댁의 문화 간 차이에서 오는 문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즉, 남존여비사상, 유교적 문화,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몰이해, 한국요리의 어려움, 관혼상제의 미숙,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 음주와 사생활의 상이 등으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문화적 대응력 미비의 문제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의 내부 대응력 혹은 조정력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한 지역주민의식, 문화적 접촉과 충격에 대한 공식적·제도적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래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적 상황이 미지수로 남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에 통합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3 사회통합의 문제

첫째,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에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언어장애로 이어진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발달성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 자녀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동학습 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둘째, 빈곤과 자녀교육의 문제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겪는 언어적·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문화 간 차이와 함께 빈곤문제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사회 내의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탈북민이 한국의 일반시민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 노동시장 지위, 경제적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생활상의 문제, 가족이나 사회관계에서 어려움 등 장기적인 갈등과 적응해야 하는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시 어려움은 의사소통, 장시간 노동, 저임금, 일-가정의 양립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족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2세의 교육 문제이다.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 혼혈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이다. 혼혈학생들이 학교체제에서 또래들의 소외와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과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중도 탈락률 증가, 낮은 취업률과 진학을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최근 이주민의 많은 경우가 자녀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을 보육기관에 맡기려 해도 혹시 그곳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을까봐 아이를 쉽게 맡기지도 못한다. 자녀교육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소수에 그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하소연 할 기관도 부족하다. 한국사회의 배타의식 때문에 집안 식구로부터 배척, 주위사람들의 시선 등으로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소외감과 정신적 긴장감, 고독과 긴장의 연속에 살아가게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각각 다른 이중문화의 성격을 지닌 국제

결혼 가정으로부터 태어난 2세대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우리글과 우리말에 익숙지 않아 자녀조차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최명민 외, 2015: 35-36)[8],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의 국적·문화 간 차이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녀가 성장했을 때 한국사회 내에서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소외계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적응 사례 연구

3.1 임신출산 과정의 적응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생애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와의 접촉단계에서 거의 동시에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경험은 주류 문화인 한국 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가 만나서 통합, 분리, 변형되는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로 장정순의 연구에 따르면 산후조리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로 베트남의 경우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은 3개월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오로지 산후조리 하나만 충실하게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2주일간 퇴원한 후 곧바로 귀가하여 자신의 몸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부담을 전부 떠안게 된다고 한다. 사례에서는 아기도 보고 빨래도 하며 시부모도 돌보았다고 한다(정정순, 2011: 56-57). 연구참여자들을 통해서 본 국적별 산후조리 기간은 베트남이 3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도네시아 40일, 중국 1개월 등으로 한국의 삼칠일보다 길게 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적응 과정과 거의 동시에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고, 특히 한국에 오자 곧바로 대가족 시집살이를 했던 참여자들은 첫 아기를 임신했을 때, 기뻐하기보다 걱정과 불안이 앞섰던 심리상태를 경험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임신 중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하는 결혼이주여성도 있다. 즉, 출산 후 산모의 섭생에는 충분한 영양섭취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못한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유수유에도 지장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 초기에 가졌던 ‘미역국’에 대한 거부감은 사라지고 ‘미역국’이 맛있고, 좋아하게 되었다는 결혼이주여성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문화적응은 임신·출산을 통한 정체성을 확립함에 있어서 가족 내 연구참여자들을 수용 또는 거부, 가족 내에서 지위권(성원권) 확보 그리고 ‘아내’나 ‘엄마’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립과 한국적 모성으로의 동화로 나타났다.

3.2 가족관계의 적응

결혼이주여성들은 본인의 삶의 기반이었던 자국을 떠나오면서 가족지지체계의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가족들에게 결혼 초기 모든 생활에 있어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와의 접촉단계에서 갈등관계가 많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부장제도, 시댁식구의 간섭 등에서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지나친 간섭이나 일방적인 동화에 대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종복 외, 2014: 219)[11].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의 연구참여자들은 남녀가 구별 없이 양성평등이 인정되는 자국의 문화와 달리 구조화된 남녀 성별분리로 역할이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는 한국문화에 대해 갈등관계에 있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시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시아버지가 외국 며느리인 자신보다는 일을 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 시아버지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한국 며느리를 더 좋아할까봐 벌써 부터 걱정이 많다고 한다.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느끼는 네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달리 대화가 힘들고 둘째, 사소한 일상생활에도 간섭하고 명령하며, 셋째, 다른 자식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말을 옮기고, 넷째, 일상생활에서 일일이 서비스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시어머니 다음으로 필리핀 여성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한국인 동서이다. 이는 시어머니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계질서를 내세워서 명령하고 통제하려 들 때라는 것이다.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

여성은 장남과 큰며느리 역할에 버거움을 느낀다고 말한다(김영옥 외, 2012: 144-145)[12].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은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들의 좋은 점을 찾으려는 특성이 있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한국 가족들의 격려와 배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나 정체성이 배제된 동화의 형태로 강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며느리를 인정하며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3 부부관계의 적응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성인남녀가 가족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때때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훨씬 높다고 본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 문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였다. 자신이 남편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남편은 자신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어떤 것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세세하게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남편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문화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거꾸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매너 없는 남편 그리고 따라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예바는 남편이 방안에서 생리현상(트립과 방귀)을 표출 할 때, 집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외출 할 때, 신발도 슬리퍼를 신고 밖에 외출할 때를 남편과 느끼는 문화차이라고 했다(이동은, 2016: 86)[13].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중국에 비해 많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데도 한국 남편은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제 결혼한 부인이 임신 중에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데 일 때문에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가 줄어들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군림하려는 한국 남편의 자세에서 가사분담은 기대할 수 없다는 문화 간 차이를 말한다. 남편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은 자녀의 어머니인 결혼이

주여성들을 화나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이 외국인이 자신에게 자녀 양육을 미루고 무관심할 때 그에 따른 불안과 더불어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

남편의 지나친 인색함과 경제적 통제권에 힘들면서도 남편의 그런 성향을 배울 것이 있다는 저축성의 장점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답답한 남편을 성실함과 비폭력성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첫 아기를 임신했을 때, 잘 해주었던 것과 첫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좋은 점으로 부각시켰다(김영옥, 2012: 177)[12].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한국인의 ‘아내’로 살아가게 된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남편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남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4.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방안

4.1 문화 간 차이 극복

첫째, 개인경험과 문화적 가치의 일치를 제한한다. 효과적 문화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를 위해 그들의 인종, 문화, 민족, 성별, 성적 지향의 배경에 부합하는 개입양식을 사용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입체계,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역사회 옹호활동, 힘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사회정책 권한 수행활동은 특정 내담자 집단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김현미, 2018: 126)[1].

둘째, 문화 간 차이의 극복 방안으로 인종적·민족적 소수집단과 사회인구학적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 특수적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사회는 백인과 흑인, 선진국가 국민과 저개발국가 국민, 한국인과 조선족 등 상응하는 인종 및 민족을 분리시키려는 전략을 오랫동안 펼치고 있다. 즉, 한국사회는 인종·민족 차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보편적임을 한국사회는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성과 다원성을 중시한다.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 생활세계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요소로서는 성·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한 차별, 가족 및 지역이거주

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위계적 관계 등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가족에서부터 이기적 자아, 지역적 차원에서는 집단정체성, 정치공동체 차원에서는 민족정체성으로 형성된다. 즉, 혈연, 지연, 학연에 따른 차별이라는 굴레를 형성하는데 이들은 모두 배타적일 뿐 공공성이 부족하다.

4.2 교육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 과목에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며, 다문화주의의 이해를 위한 문화인류학 관련 과목과 문화와 사회복지, 아시아 문화 연구 등의 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훈련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외에도 문화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나 해당 문화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워크숍,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 방문 및 체험, 한글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3 법적 지원 필요성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만을 지원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가족문화의 이해라든가, 결혼이주여성 상담이라는 항목이 결여되어 있는 등 보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홍규호, 2016: 76)[14].

결론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정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생활이 자국의 생활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심과 높은 수준의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방안이 요구된다.

5. 결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가정적으로 남편과 가족구성원들 즉 가족관계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와 동시에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의 적응과정에서부터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 간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적응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임신·출산 과정의 적응과정에서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가 만나서 통합, 분리, 변형되는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관계의 적응과정에서 한국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와의 갈등관계가 많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관계의 적응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 문화 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 간 차이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문화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를 위해 그들의 인종, 문화, 민족, 성별, 성적 지향의 배경에 부합하는 개입양식을 사용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전문교육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 과목에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며, 다문화주의의 이해를 위한 문화인류학 관련 과목과 문화와 사회복지, 아시아 문화 연구 등의 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관련법의 제정비가 필요하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만을 지원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가족문화의 이해라든가, 결혼이주여성 상담이라는 항목이 결여되어 있는 등 보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정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생활이 자국의 생활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

심과 높은 수준의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방안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김현미(2018). “결혼여성 이민자의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다문화 사회복지실천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현실(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신간호학회지』 20(2) : 188-198.
- [3] 박정하(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통계청·법무부(2019).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5] 통계청(2019).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6]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별첨1)』.
- [7]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 [8] 최명민 외(2015),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9] 지은구 외(2016). 『최신사회문제론』. 서울: 학지사.
- [10] 정정순(2011),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문화적응”,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이종복 외(2014).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광주: 경기: 양서원.
- [12] 김영옥(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불안에 대한 연구: 경기도 S시의 필리핀 여성들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이동은(2016).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특징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홍규호(2016).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강유선(2020).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

태도의 발달케적과 발달산물의 관계”.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석인선(2019).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과주. 경기: 정민사.

허 명 준(Heo, Myeong-Jun)



- 2015년 : 청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7년 :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 2019년~현재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9년~현재 : 경민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다문화 사회복지, 노인복지
- E-Mail : 333i@naver.com